

## 최형우 10년 만에 친정 복귀 할까?

삼성 라이온즈, 적극적으로 구애나서...계약 성사 목전에 둔 듯  
'144안타·24홈런' 불혹을 넘긴 나이에도 꾸준한 기량 눈에 띄네  
박찬호 이어 최형우까지 잃게 생긴 KIA, 2026 시즌 걱정 앞서

2025시즌을 마치고 프리에이전트(FA) 시장에 나온 최형우가 친정팀 삼성 라이온즈 유니폼을 입을 분위기다.

지난해 1월 KIA 타이거즈와 계약 기간 1+1년, 최대 22억원에 비(非) FA 다년 계약을 맺은 최형우는 2025시즌을 끝으로 이 계약이 만료됐고, FA 자격을 얻어 시장에 나왔다.

FA 시장 개막을 앞두고 최형우는 KIA 잔류가 유력해보였지만, 삼성의 적극적인 구애에 상황이 달라졌다.

삼성에서는 시장이 열리자마자 적극적으로 관심을 드러내며 러브콜을 보냈다. 단순히 관심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제안을 내밀며 정성을 보였다.

이에 마음이 움직인 최형우와 삼성의 계약이 사실상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계약서에 사인이 이뤄지면 최형우는 2016년 이후 정확히 10년 만에 친정팀에 금의환향하게 된다.

2002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2차 6라운드 전체 48순위로 삼성 지명을 받은 최형우는 2005년 팀에서 방출됐지만, 2007년 경찰 야구단에서 퓨처스(2군)리그 타격 7관왕에 등극하며 프로 재입단 기회를 스스로 만들었다.

2008년 다시 삼성 유니폼을 입은 최형우는 그해 126경기 타율 0.276, 19홈런 71타점 68득점으로 활약하며 신인왕을 수상, 리그 정상급 타자로 올라섰다.

삼성이 2011~2014년 4년 연속 통합 우승을 달성했을 때 최형우는 주축 타자로 활약하며 왕조 건설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2014년에는 113경기 타율 0.356, 31홈런 100타점 92득점으로 필렐 날았다.

2016시즌을 마치고 첫 FA 자격을 얻은 최형우는 이적을 택했다. 4년, 총액 100억원의 조건을 제시한 KIA의 손을 잡았다. FA 도입 이래 첫 100억원대 계약이었다.

KIA로 팀을 옮기고 나서도 최형우는 꾸준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연속 3할 타율을 넘겼고, 2017~2018년, 2020년에는 25개 이상의 홈런을 때려냈다.

1983년생인 최형우는 불혹을 넘긴 나이에도 꾸준했다. 2025시즌 133경기에 출전해 타율 0.307(469타수 144안타), 24홈런 86타점 74득점에 OPS(출루율+장타율) 0.928을 작성했다.

올 시즌 KIA에서 규정타석을 채운 타자 중 타율과 OPS가 가장 높았다. 또 KIA 국내 타자 중에서 가장 많은 홈런을 쳤다.

삼성은 최형우가 갖춘 공격 생산성과 꾸준함이 팀 타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발 빠르게 움직였다.

타자 친화적 구장인 대구 삼성라이온즈 파크를 홈 구장으로 쓰는 삼성은 화려한 장타가 돋보이는 팀이다. 삼성은 홈 구장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 강타자를 대거 육성했다.

지난해(185개)와 올해(161개) 2년 연속 팀 홈런 1위를 차지했다. 올해 팀 장타율 1위도 0.427의 삼성이었다.

특히 간판 타자 구자욱과 '젊은 거포' 김영우에 올해 50홈런을 날린 외국인 타자 르빈 디아즈가 버티 중심타선은 상대 배터리에 부담을 안긴다. 삼성은 시즌 뒤 디아즈와의 재계약도 마무리한 상황이다.

여기에 최형우가 가세한다면 삼성 타선은 한층 무서워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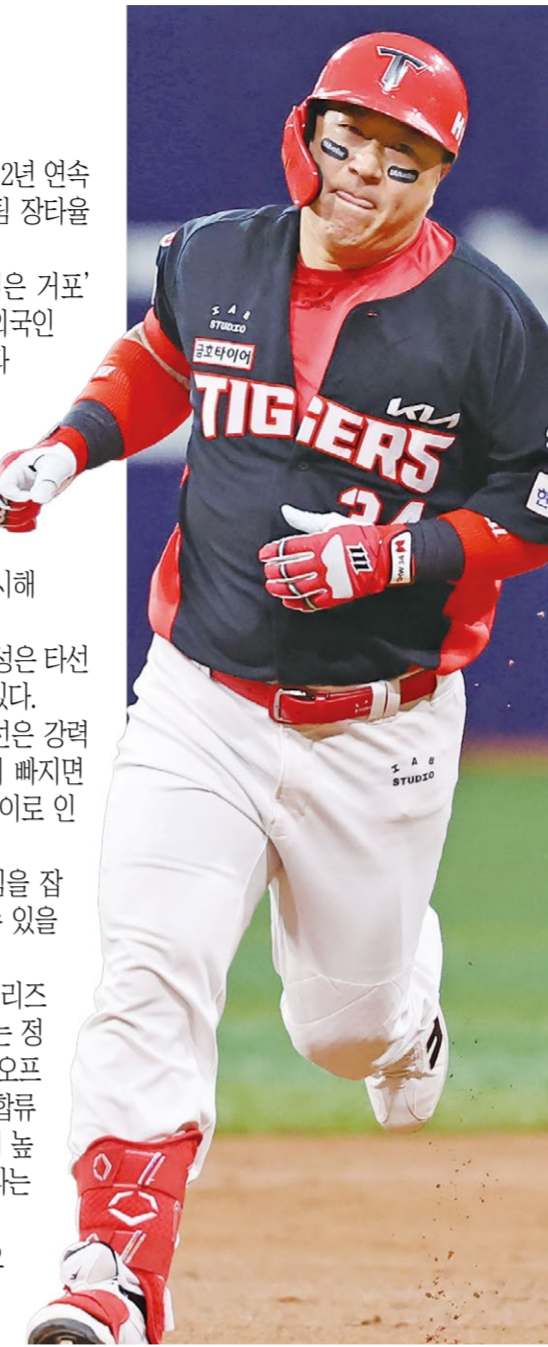
최형우가 꾸준함을 더하면 삼성은 타선의 기복을 줄이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젊은 타자들이 많은 삼성 타선은 강력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슬럼프에 빠지면 헤어 나오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연패도 길어지곤 했다.

경험이 풍부한 최형우가 중심을 잡아준다면 이런 약점도 보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정규시즌 2위, 한국시리즈 준우승을 차지한 삼성은 올해에는 정규시즌을 4위로 마친 뒤 플레이오프에서 도전을 멈췄다. 최형우가 합류해 한층 강력한 타선을 꾸리면 더 높은 곳에서 가을야구를 시작하겠다는 바람을 이룰 가능성도 커진다.

반면 FA계약을 통해 두산으로 이적한 박찬호에 이어 최형우까지 잃게 생긴 KIA는 내년 시즌이 걱정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아직 내부 FA도 남아있는 상황. KIA가 양현종, 조상우의 잔류 계약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무안군청 검토팀, 우수 단체상 수상 쾌거

대한검도회 주관으로 열린 '2025년 검도인의 밤'서  
전국대회 압도적 성적...명문 실업팀의 위상 입증

무안군청 검토팀(감독 이광철)이 지난 11월 29일 대전 호텔선사에서 열린 대한검도회 주관 2025년 검도인의 밤 행사에서 우수 단체상을 수상했다.

올 한 해 동안 총 6개 전국대회에 참가해 단체전 우승 4회, 3위 1회와 개인전 우승 1회, 준우승 1회, 3위 1회를 기록한 검토팀은 이러한 우수한 성적을 바탕으로 전국 최상위 검도 실업팀으로서의 경쟁력을 인정받아 대한검도회로부터 우수 단체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무안군청 검토팀 소속 김한범 선수는 지난 11월 18일 열린 제1회 아시아·오세아니아 검도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향후 3년간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하게 되는 성과를 거두는 등 팀에 걸경사를 안겼다.

김한범 선수는 "2025년은 무안군청 검토팀에 있어 매우 뜻깊은 한 해"라며 "김한범 선수의 국가대표 발탁에 이어, 대한검도회로부터 우수단체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했다.



무안군청 검토팀이 '2025년 검도인의 밤'에서 우수단체상을 수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무안군을 대표하는 스포츠팀으로서 더욱 큰 활약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밝혔다.

한편, 무안군청 검토팀은 현재 이광철 감독(8단)을 비롯해 김태일 코치(7단), 유하늘 주장(6단), 손태준·이후성·김한범·정경인 선수(이상 4~5단), 김병훈·심은서·박시원 선수(3단)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무안군 제공

## 광주·전남 테니스 동호인들, 영광서 자웅 겨룬다

오는 6일 '제2회 천년의 빛 영광 동호인 테니스대회' 개최



오는 6일 영광스포티움 테니스장을 포함한 영광내 9개 구장에서 '제2회 천년의 빛 영광 동호인 테니스대회'가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대회 모습.

영광군(군수 장세일)이 오는 6일(토) 영광스포티움 테니스장을 포함한 9개 구장에서 "제2회 천년의 빛 영광 동호인 테니스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영광/이현식 기자

## 팔마의 고장 순천시, 제1회 유소년 승마대회 개최

힐링승마체험도 운영...승마의 매력 알리고 승마문화 저변 확대



지난 11월 국가정원스페이스브릿지하부 동천변에서 진행된 승마체험.

순천시가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풍덕수변공원 특설 경기장에서 '제1회 순천시장배 팔마 유소년 승마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순천시가 처음으로 개최하는 전국 규모의 유소년 승마대회로 시민

순천/정성인 기자

## '백승호 리그 4호골' 버밍엄, 왓퍼드에 2-1 승리

어깨 부상 떨치고 건재함 과시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 미드필더 백승호(28)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챔피언십(2부 리그) 버밍엄시티 소속으로 리그 4호골을 터트리며 팀 승리에 기여했다.

버밍엄은 2일(한국 시간) 영국 버밍엄의 세인트앤드루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왓퍼드와의 2025~2026시즌 챔피언십 18라운드 홈 경기에서 2-1 승리를 거뒀다.

백승호는 11월9일 미들즈브러와의

리그 경기 중 왼쪽 어깨 부상을 당했다. 11월 A매치 명단에서 제외돼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의 14일 볼리비아전, 18일 가나전을 소화하지 못했다.

A매치가 끝난 이후에도 결장했던 그는 WBA전을 통해 복귀전을 소화했다.

예를 마친 그는 이날 리그 4호골까지 터트리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뉴시스

함평의 밤, 빛의 향연!

# 2025 함평 겨울빛축제

2025 Hapyeong Winter Light Festival

2025. 11. 28. (금) 16:00  
2026. 1. 11. (일) -21:00

함평엑스포공원 및 읍 시가지 일원

리가 경기 중 왼쪽 어깨 부상을 당했다. 11월 A매치 명단에서 제외돼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의 14일 볼리비아전, 18일 가나전을 소화하지 못했다.

A매치가 끝난 이후에도 결장했던 그는 WBA전을 통해 복귀전을 소화했다.

예를 마친 그는 이날 리그 4호골까지 터트리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뉴시스